

무안국제공항서 첫 '데일리 정기 국제선' 날아올랐다

개항 17년 만에...진에어, 나라타·오사카·대만 타이베이 노선 제주 노선도 매일 운항...김영록 지사 "미래 재도약 위한 초석"

무안국제공항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데일리 정기 국제선'이 날아올랐다. 제주 노선도 매일 운항돼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일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무안에서 일본 나라타·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국제선과 제주 노선을 운항키로 하고 이날 취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항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첫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로 탑승권 첫 구매자에게 무안-제주 왕복 항공권을 증정했다.

진에어는 이날부터 오전 8시25분 출발하는 무안-일본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나라타, 오후 11시30분 대만 타이베이 국제선과 오후 1시30분 제주 국내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이날 처음 데일리 노선이 운항되는 나라타 국제공항은 일본의 중추공항이다. 세계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대부분 노선이 취항하고 있어 환승시 미주, 유럽은 물론, 남미 등 다양한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핵심 노선이다.

전남도는 진에어 등과 지난 3월 도청에서 무안군,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하고 신규 정기

노선 확대를 위해 협력해 왔다.

항공사별 하·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및 이용 안내 지원을 위해 정기·부정기 노선에 대한 공중과 TV·라디오 캠페인 광고, KTX 객실 모니터, 시내의 버스 랩핑, 언론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도 지원했다.

최근에는 전남도, 무안군, 항공사가 합동으로 전남 주요 철도역, 대학,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또한 진에어는 지난 5월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무안국제공항에 등록하고 재산세 약 2억원을 납부하는 등 무안 지역 경제 발전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치장은 항공기를 등록한 장소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오는 8일부터는 제주항공이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주 정기편을 운항한다.

이로써 올해 동절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총 9개 국가 18개 국제선이 운항할 예정이어서 호남권 주민들의 국제선 선택의 폭과 항공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미래 재도약의 초석이 될 첫 데일리 국제선 취항식을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외국 관광객과 기업이 유입돼 서남권이 장래 활력을 찾도록 진에어와 한국공항공사,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재정기자



2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무안국제공항 첫 데일리(Daily) 국제 정기선 취항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의원·직원 월급 1만원 미만 끝전 모아 기부

도의회, 1천130만원 모금...물품 1천400여점도 전달 예정

전남도의회는 2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1천13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의원과 직원들의 월급에서 1만원 미만 '끝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과 직원들의 작은 실천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ESG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모은 1천400여점의 물품도 이날 중 아름다운가게 목포점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시간당 30만원' 출연료 특혜 논란 김광진 前 부시장, 프로그램 하차

글로벌광주방송 "내년 개편"

고액 출연료 논란을 받았던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결국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GGN 글로벌광주방송은 2일 "내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며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는 이달 말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광주방송은 "그동안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거센 압박 등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방송을 이어가기는 어렵게 됐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개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9일 첫 방송을 시작한 김광진 전 부시장은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5개월 만에 하차하게 됐다.

글로벌광주방송은 진행자인 김 전 부시장에게 10분 당 5만원을 기준으로 1시간에 30만원, 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해 과다 출연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GGN 글로벌 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GGN 예산 5억여원 삭감에도 김 전 부시장에게 월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출연료 과다 지급으로 명백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GGN 글로벌 광주방송 운도한 대표 이사는 "김 전 부시장의 출연료 삭감과 교체 여부는 청취율과 2024년 광주시의 예산 지원 등을 종합 검토해 2025년 개편 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여방송국 폐지론이 나오는 시기에 광주가 지켜온 좋은 플랫폼을 시대에 맞게 잘 개편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글로벌 광주방송 전체로까지 커지는 것 같아 방송을 그만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을 유지함으로써 방송국 실무진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제 의무"라고 덧붙였 다. /변은진기자

"광주소방합동청사 2028년 개청 지연 우려"

채은지 시의원 "부지매입 절차 늦어져...예산 적기 반영돼야"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를 아우르는 합동청사 개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일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시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부소방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안전 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상태"라며 "비좁은 시청사에 자리한 소방본부의 인력과 장비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 합동청사 부지 매입 필요액은 47억원 규모였지만 사유지 협의 지연과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33억원만 편

성됐다"며 "당초 계획인 2028년 통합청사 개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용 광주소방 안전본부장은 "설계용역과 부지 매입 절차가 다소 늦어진 면이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필요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는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사업비 659억원(시비 409억7천만원, 교부세 250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변은진기자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CHANGE CHANCE

Happy Holidays

2024.12.01 ~ 2025.01.31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Happy Holidays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 포함, 쓰시던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 할인가로 구매가능!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무선청소기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MC-A10 (249,000원)

*착상 편입방송
*재고 소진시까지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